

브라질

2003. 9

권기수

(kskwon@kiep.go.kr)

I. 일반개황

□ 자연지리

- 국토면적: 8,511,965 km²(세계 5위, 남미대륙의 47.7%)
- 인 구: 1억 7,185만명(1999년 7월)
- 기 후: 북부-열대, 중부-아열대, 남부-온대
(연평균 기온은 23~24℃로 4계절 구분이 뚜렷하지 않음)
- 시 간 대: GMT보다 3시간 빠름(한국보다 12시간 늦음)

□ 행 정

- 공식국명: 브라질 연방공화국(영어명: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포르투갈어명: Republica Federativa do Brasil)
- 수 도: 브라질리아(Brasilia, 인구 173만명)
- 행정조직: 26개주, 1연방구, 5,505개 지방자치시

□ 정 치

-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4년 중임)
- 대 통 령: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Luiz Inacio Lula da Silva)
- 의회형태: 양원제(상원: 81석, 임기 8년; 하원: 513석, 임기 4년)
- 주요정당: 노동자당(PT), 브라질사회민주당(PSDB), 자유전선당(PFL),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 사회·문화

- 인 종: 백인 (55%, 포르투갈계, 독일계, 이탈리아계, 스페인계, 폴란드계), 흑백혼혈(38%), 흑인(6%), 기타(1%, 일본계, 아랍계, 인디오)
- 언 어: 포르투갈어
- 종 교: 가톨릭
- 공 휴 일: 독립기념일(9월 7일)

한국과의 관계

- 국교수립: 1959년 10월 31일
- 교 민 수: 46,916명(중남미 거주 전체 교민의 45.6%, 1999년 기준)
- 협정체결: 문화협정(67년), 과학기술협력협정(91년), 이중과세방지협정(91년), 항공협정(95년), 관광협정(97년), 상용·투자·취재복수 사증발급협정(97년), 사증면제협정 발효(2002.5.20)

II. 주요 경제지표

1. 최근 경제 동향

	단위	1998	1999	2000	2001	2002
인구	천만 명	169.3	171.2	172.9	174.5	176.0
경상 GDP	10억 달러	787.7	531.1	593.8	502.5	452.4
1인당 경상 GDP	달러	4,650	3,100	3,440	2,880	2,570
실질 GDP 증가율	%	0.2	0.8	4.5	1.5	1.5
재정수지	%, GDP 대비	-7.9	-10.0	-3.4	-3.2	-9.9
정부부채	%, GDP 대비	42.4	49.4	49.4	52.6	55.9
소비자물가상승률	%, 연말기준	1.7	8.9	6.0	7.7	12.5
실업률	%	7.6	7.6	7.1	6.2	7.2
환율	연말기준	1.21	1.79	1.96	2.32	3.53
경상수지	10억 달러	-33.8	-25.4	-24.6	-23.2	-7.7
	%, GDP 대비	-4.3	-4.7	-4.1	-4.5	-1.7
수출	10억 달러	51.1	48.0	55.1	58.2	60.4
수입	10억 달러	-57.7	-49.3	-55.8	-55.6	-47.2
무역수지	10억 달러	-6.6	-1.3	-0.7	2.6	13.1
FDI	10억 달러	31.9	28.6	32.8	22.5	16.6
총외채	10억 달러	241.0	243.7	238.8	226.4	211.4
	%, GDP 대비	30.6	45.4	39.7	44.3	46.7
수출대비 외채비율	%	303.6	343.0	296.4	263.6	233.3
외채상환률(DSR)	%	79.1	117.2	93.3	75.2	71.8
인구(전세계 대비)	%	2.86	2.85	2.84	2.83	2.84
GDP(전세계 대비)	%	2.72	2.67	1.75	1.92	1.64
수출(전세계 대비)	%	0.94	0.85	0.87	0.96	0.96

자료: EIU, Viewswire, 12 August 2003.

2. 향후 경제전망

항 목	단 위	2003		2004	
		WEFA	EIU	WEFA	EIU
실질GDP 증가율	%	1.8	1.3	3.2	2.0
물가상승률	%	15.3	10.6	10.1	6.8
환율	달러대 헤알	3.36	3.24	3.61	3.49
재정수지	GDP대비, %	-10.7	-2.8	-9.3	-2.4
경상수지	GDP대비, %	-1.4	-0.4	-1.3	-0.4

자료: WEFA, World Economic Outlook, 3rd Quarter 2003.

EIU, Viewswire, 10 August 2003.

3. 대외경제관계

가. 품목별 수출입

□ 품목별 수출

(단위: 백만 달러, %)

	2000		2001		200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자본재	9,516	17.27	9,375	16.10	8,549	14.16
사무용, 과학용 장비기계	619	1.12	543	0.93	467	0.77
공업기계부품	822	1.49	745	2.50	798	1.32
공업기계	1,384	2.51	1,457	2.50	1,314	2.18
수송장비	4,483	8.14	4,195	7.21	3,575	5.92
소비재	12,134	22.03	13,737	23.59	14,126	23.40
비내구성소비재	8,476	15.39	9,827	16.88	10,244	16.97
식품	4,655	8.45	5,921	10.17	6,531	10.82
음료 및 담배	1,205	2.19	1,215	2.09	1,139	1.89
내구성소비재	3,658	6.64	3,911	6.72	3,882	6.43
승용차	1,846	3.35	2,026	3.48	2,093	3.47
연료	864	1.57	2,056	3.53	2,893	4.79
중간재원자재	31,498	57.18	31,868	54.73	33,749	55.91
동물사료	1,724	3.13	2,664	4.58	2,569	4.26
식품	5,108	9.27	6,104	10.48	6,460	10.70
비식품농목축제품	5,096	9.25	4,930	8.47	4,882	8.09
광산물	9,764	17.73	8,579	14.73	9,486	15.72
중간재-부품	902	1.64	865	1.49	976	1.62
의약 및 화학제품	3,508	6.37	3,131	5.38	3,465	5.74
건설자재	1,554	2.82	1,653	2.84	1,919	3.18
수송장비부품	3,452	6.27	3,539	6.08	3,538	5.86
총계	55,086	100.00	58,223	100.00	60,362	100.00

자료: 브라질통상산업부 대외교역국(SECEX)

□ 품목별 수입

(단위: 백만 달러, %)

	2000		2001		200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자본재	13,590	24.36	14,801	26.63	11,593	24.54
사무용, 과학용 장비기계	2,546	4.57	2,726	4.90	2,257	4.78
공업기계부품	946	1.70	1,015	1.83	974	2.06
공업기계	3,923	7.03	4,861	8.75	4,367	9.25
공업용자본재부품	1,624	2.91	1,772	3.19	1,199	2.54
수송장비	1,261	2.26	855	1.54	578	1.22
소비재	7,306	13.10	7,107	12.79	5,907	12.51
비내구성소비재	3,931	7.05	3,591	6.46	3,400	7.20
식품	1,507	2.70	1,169	2.10	1,085	2.30
의약품	1,124	2.01	1,184	2.13	1,211	2.56
내구성소비재	3,375	6.05	3,516	6.33	2,507	5.31
승용차	1,332	2.39	1,529	2.75	834	1.77
연료	6,362	11.40	6,276	11.29	6,281	13.30
중간재원자재	28,524	51.13	27,396	49.29	23,451	49.65
기타농업원자재	1,617	2.90	1,606	2.89	1,616	3.42
식품	1,639	2.94	1,602	2.88	1,680	3.56
비식품농목축제품	2,466	4.42	1,934	3.48	1,602	3.39
광산물	4,943	8.86	4,452	8.01	3,069	6.50
중간재-부품	4,881	8.75	4,654	8.37	3,783	8.01
의약 및 화학제품	7,846	14.06	7,949	14.30	7,297	15.45
수송장비부품	4,026	7.22	4,228	7.61	3,565	7.55
총계	55,783	100.00	55,581	100.00	47,232	100.00

자료: 브라질통상산업부 대외교역국(SECEX)

나. 지역별 수출입

□ 지역 및 국가별 수출

- 지역 및 경제통합체별 수출

(단위: 백만 달러, %)

	2001		200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MERCOSUR	6,364	10.93	3,310	5.48
중미공동시장(CACM)	283	0.49	418	0.69
카리브공동시장(CARICOM)	366	0.63	584	0.97
EU	14,865	25.53	15,113	25.04
아시아	6,949	11.94	8,791	14.56
중동	2,041	3.51	2,342	3.88
아프리카	1,988	3.42	2,362	3.91
오세아니아	275	0.47	292	0.48
총계	58,223	100.00	60,362	100.00

자료: 브라질통상산업부 대외교역국(SECEX)

- 국가별 수출(상위 10대국, 2002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02	
		금액	비중
1	미국	15,354	25.44
2	네덜란드	3,182	5.27
3	독일	2,537	4.20
4	중국	2,520	4.18
5	멕시코	2,342	3.88
6	아르헨티나	2,341	3.88
7	일본	2,098	3.48
8	벨기에-룩셈부르크	1,892	3.13
9	이탈리아	1,817	3.01
10	영국	1,769	2.93

자료: 브라질통상산업부 대외교역국(SECEX)

□ 지역 및 국가별 수입

－ 지역 및 경제통합체별 수입

(단위: 백만 달러, %)

	2001		200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MERCOSUR	7,010	12.61	5,615	11.89
중미공동시장(CACM)	38	0.07	34	0.07
카리브공동시장(CARICOM)	23	0.04	37	0.08
EU	14,822	26.67	13,070	27.67
아시아	8,925	16.06	7,996	16.93
중동	1,472	2.65	1,479	3.13
아프리카	3,325	5.98	2,687	5.69
오세아니아	301	0.54	247	0.52
총계	55,581	100.00	47,231	100.00

자료: 브라질통상산업부 대외교역국(SECEX)

－ 국가별 수입(상위 10대국, 2002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02	
		금액	비중
1	미국	10,285	21.78
2	아르헨티나	4,747	10.05
3	독일	4,398	9.31
4	일본	2,347	4.97
5	이탈리아	1,761	3.73
6	프랑스	1,747	3.70
7	중국	1,554	3.29
8	영국	1,341	2.84
9	나이지리아	1,091	2.31
10	한국	1,066	2.26

자료: 브라질통상산업부 대외교역국(SECEX)

다. 외국인직접투자

1) 연도별 FDI 유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도	민영화					기타	총계
	전력	통신	가스	기타	소계		
1996	1,760	544	-	341	2,645	7,851	10,496
1997	3,079	433	574	1,163	5,249	13,494	18,743
1998	1,927	4,167	0	27	6,121	22,360	28,480
1999	1,020	6,659	1,106	-	8,786	22,587	31,372
2000	693	2,289	295	3,774	7,051	26,352	33,403
2001	-	622	-	457	1,079	20,014	21,093
2002	-	280	-	-	280	18,656	18,936
2003. 1~7	-	-	-	-	-	6,311	6,311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2) 업종별 FDI 유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분야	2000		2001		200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목축광업	649	2.2	1,494	7.1	638	3.4
공업	5,087	17.0	7,001	33.3	7,617	40.6
화학	1,118	3.7	1,546	7.3	1,573	8.4
자동차조립생산	961	3.2	1,550	7.4	1,819	9.7
식음료	975	3.3	563	2.7	1,873	10.0
서비스	24,139	80.8	12,547	59.6	10,498	56.0
통신우편	10,897	36.5	4,130	19.6	4,166	22.2
금융중개	6,384	21.4	2,123	10.1	1,206	6.4
전력가스수자원	2,972	9.9	1,442	6.9	1,534	8.2
소매업	1,635	5.5	1,634	7.8	1,504	8.0
총계	29,876	100.0	21,042	100.0	18,753	100.0

주: 국내 화폐 투자 및 민영화 관련 투자 제외. 천만 달러 이하 투자 제외.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BCB)

3) 국별 FDI 유입

(단위: 백만 달러, %)

	2000		2001		200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 계	29,876	100.0	21,042	100.0	18,754	100.0
미국	5,399	18.1	4,465	21.2	2,614	13.9
스페인	9,593	32.1	2,767	13.1	587	3.1
네덜란드	2,228	7.5	1,892	9.0	3,348	17.9
케이만군도	2,035	6.8	1,755	8.3	1,555	8.3
버뮤다	315	1.1	607	2.9	1,469	7.8
프랑스	1,910	6.4	1,913	9.1	1,815	9.7
영국령 버진군도	231	0.8	912	4.3	501	9.7
포르투갈	2,515	8.4	1,692	8.0	1,019	5.5
독일	375	1.3	1,047	5.0	628	3.4
일본	385	1.3	827	3.9	504	2.7
캐나다	193	0.6	441	2.1	989	5.3
이탈리아	488	1.6	281	1.3	473	2.5
바하마	181	0.6	264	1.3	205	1.1
영국	394	1.3	416	2.0	475	2.5
벨기에	384	1.3	113	0.5	45	0.2
룩셈부르크	1,027	3.4	285	1.4	1,013	5.4
멕시코	224	0.8	61	0.3	24	0.1
스위스	307	1.0	182	0.9	347	1.9
스웨덴	629	2.1	54	0.3	205	1.1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BCB)

4. 한·브라질 경제관계

가. 교역

□ 對브라질 수출입 추이

- 브라질은 한국의 제21대 수출 대상국이며, 25대 수입 대상국임(2002년 기준).
-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 파나마에 이은 제3대 수출 대상국이며, 수입면에서는 제1의 대상국임.

□ 한국의 對브라질 수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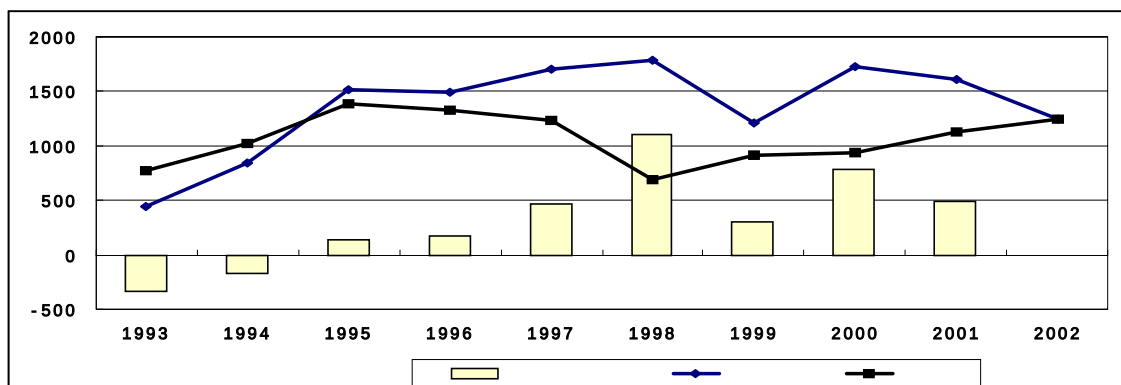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수출		수입		총교역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3	449	172.7	779	-2.2	1,228	27.8	-330	47.9
1994	844	88.2	1,019	30.8	1,863	51.7	-175	47.0
1995	1,519	79.9	1,388	36.2	2,907	56.0	131	174.9
1996	1,497	-1.4	1,325	-4.6	2,822	-2.9	172	31.3
1997	1,711	14.3	1,239	-6.5	2,950	4.5	472	174.4
1998	1,792	4.7	693	-44.0	2,485	-15.8	1,099	132.8
1999	1,209	-32.5	910	31.2	2,119	-14.8	299	-72.8
2000	1,724	42.6	935	2.8	2,659	25.5	789	163.9
2001	1,611	-6.5	1,123	20.4	2,734	2.8	488	-38.1
2002	1,247	-22.6	1,248	10.9	2,495	-8.7	-1	-
2003.1~7	668	-13.7	852	30.1	1,520	6.4	-184	-

주: 증감률은 전년대비

자료: KOTIS

- 한국의 對브라질 수출입 추이(단위: 백만 달러)



□ 對브라질 품목별 수출구조(MTI 1단위)

(단위: 천 달러, %)

	2000		2001		2002		2003. 1~7	
품목명	금액	증가율	금액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농림수산물	4,541	14.4	4,086	-10.0	3,091	-24.4	1,620	3.3
광산물	48,801	309,690.20	99,828	104.6	59,903	-40.0	-	-
화학공업제품	157,726	42.5	144,538	-8.4	115,861	-19.9	81,954	-1.0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117,452	21.7	93,509	-20.4	45,906	-50.9	23,239	-29.3
섬유류	240,007	4.7	216,459	-9.8	187,054	-13.6	58,736	-57.5
생활용품	16,373	13.3	17,009	3.9	11,734	-33.2	5,701	-23.0
철강·금속제품	22,741	68.2	24,424	7.4	32,387	32.2	12,224	-36.9
기계류	292,202	88.9	230,412	-21.1	149,689	-35.0	61,886	-39.0
전자·전기제품	817,632	40.9	775,419	-5.2	637,281	-17.8	421,473	8.7
잡제품	6,656	10.4	5,526	-17	4,336	-7.9	1,110	-59.8
총계	1,724,130	42.6	1,611,210	-6.5	1,247,242	-22.6	667,942	-13.7

자료: KOTIS

□ 對브라질 품목별 수입 구조(MTI 1단위)

(단위: 천 달러, %)

	2000		2001		2002		2003. 1~7	
품목명	금액	증가율	금액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농림수산물	227,123	3.0	227,123	425,252	452,174	6.3	218,095	-11.4
광산물	359,518	34.0	359,518	334,192	361,409	8.1	311,169	77.9
화학공업제품	112,730	3.8	112,730	79,542	83,429	4.9	56,357	21.9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11,274	-3.5	11,274	18,324	21,491	17.3	9,922	-20.1
섬유류	940	-34.9	940	1,121	2,473	120.6	3,588	266.9
생활용품	763	-21.2	763	654	708	0.1	408	13.1
철강·금속제품	204,900	-25	204,900	253,199	300,085	18.5	201,358	26.4
기계류	8,282	28.3	8,282	7,621	10,336	35.0	39,311	578.7
전자·전기제품	8,836	-49.4	8,836	4,923	15,148	207.7	10,466	28.2
잡제품	943	-5.0	943	883	719	-9.2	1,002	127.8
총계	935,310	2.8	935,310	1,125,710	1,247,972	10.9	851,676	30.1

자료: KOTIS

나. 투자

□ 연도별 對브라질 직접투자 추이(총투자 기준)

(단위: 천 달러, %)

연도	건수	금액
1968~80	2	269
1981~90	0	0
1991~93	2	219
1994	3	439
1995	4	19,158
1996	5	50,137
1997	3	47,751
1998	2	34,677
1999	4	26,507
2000	1	25,645
2001	8	63,173
2002	3	3,074
2003. 1~6	2	3,924
누계	39	274,723
투자잔액(순투자)	33	271,14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업종별 對브라질 해외직접투자(2003년 6월말 현재 총 투자 누계기준)

(단위: 천 달러, %)

업종	건수	금액	비중
제조업	21	254,214	92.5
광업	1	7,902	2.9
건설업	2	645	0.2
도소매업	7	6,885	2.5
운수창고업	2	339	0.1
통신업	2	2,183	0.8
숙박·음식업	1	2,000	0.7
부동산 및 서비스업	3	555	0.2
총계	39	274,723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III. 경제현안

1. 브라질의 경제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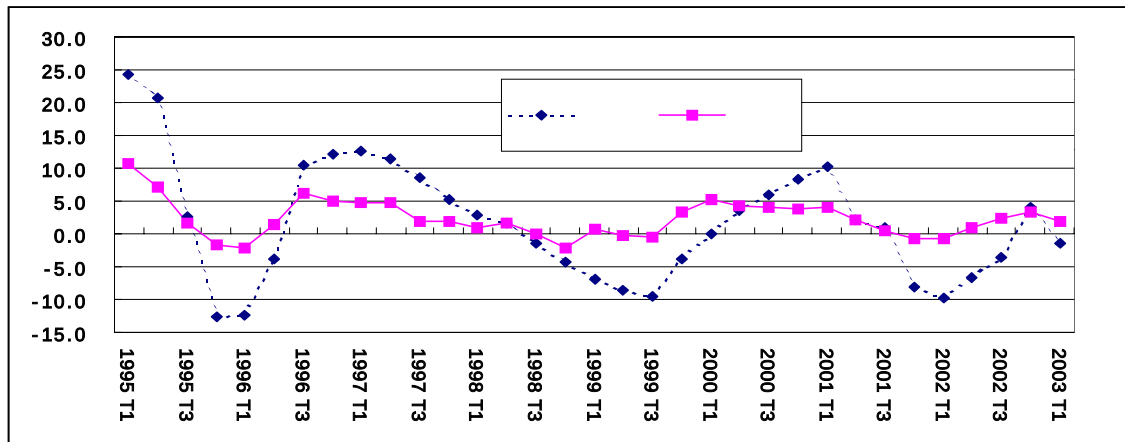
가. 최근 경제현황

□ 경기침체 징후 뚜렷

- 2003년 들어 신정부의 시장지향적 경제정책 추진에 힘입어 금융 및 외환 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 반해, 긴축재정·통화정책의 영향으로 실물 경제는 침체를 보이고 있음.
- 브라질 통계청(IBGE)에 따르면 1분기 2.0%(전년동기대비 기준)의 성장세를 보였던 브라질 경제는 2분기 들어 -1.4% 하락했음.
- 이 같은 침체 요인은 강도 높은 긴축재정정책과 고금리에 따른 기업의 투자욕 상실 및 소비수요 냉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 현재 중앙은행기준금리(Selic)가 20%를 상회하는 가운데 시중은행의 기업 및 가계대출금리(연간 기준)는 각각 80%, 250%에 달하고 있음.
- 이 같은 경기침체로 2003년 들어 실업자수만 44만 명이 증가, 실업률은 연초 11%에서 6월에는 13%로 증가했음.
- 특히 문제는 장기간의 경기침체에도 최근 개혁입법을 둘러싼 정치사회권의 대립이 노골화되면서 브라질 경제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 國內外 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하거나 유보하고 있다는 데 있음.
- 특히 그간 브라질 경제의 중요한 자금원 역할을 해왔던 FDI가 크게 감소, 금년 1~7월 FDI 유입은 전년동기대비 49% 감소한 63억 달러에 그쳤음.
- 이 같은 감소추세를 반영, 브라질 정부는 금년 FDI 유입이 2002년 189억 달러의 절반 수준인 90억 달러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분기별 경제성장률 및 실질투자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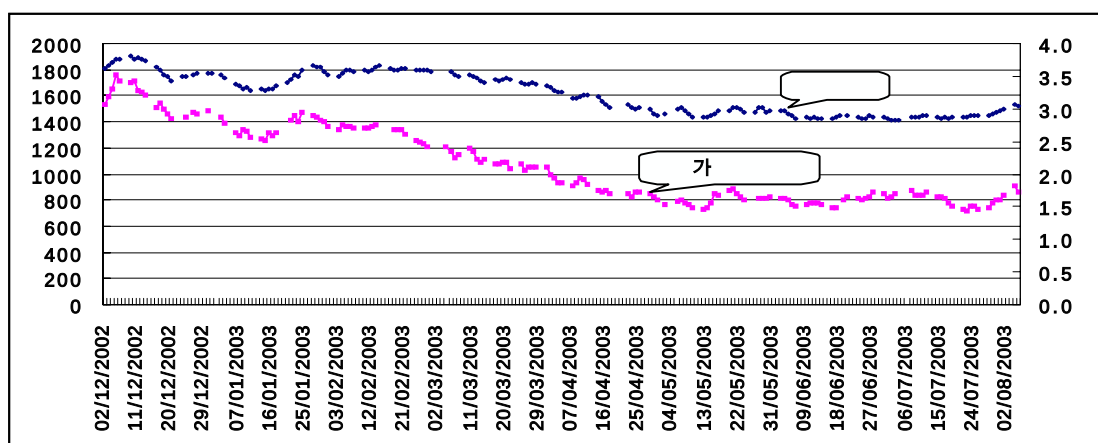


자료: IPEAdata.

□ 환율시장 안정 지속 및 대외신인도 회복

- 다 실바 정부의 市場友好的 경제정책의 추진에 힘입어 브라질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급속히 개선되면서 2002년 말까지 커다란 혼란을 보였던 환율시장이 신속히 안정되었으며,
- 국가위험도도 큰 폭으로 하락, 2002년 하반기 사실상 중단되었던 국제 자본시장에서 자본차입도 재개되었음.

<환율 및 국가위험도 추이>



자료: IPEAdata.

- 2002년 10월 대선 직전 달러당 4헤알까지 하락했던 헤알화 가치는 2003년 들어 급격히 안정, 8월 5일 현재 지난해말 대비 14% 상승한 3

해알에 달했음.

- 또한 연초 1,446bps에 달했던 브라질 국가위험도(C-bond 기준)도 금년 들어 점차 하락, 8월 5일 현재 863bps수준으로 개선되었음.
- 대외신인도 개선에 힘입어 브라질 정부는 지난 4월과 6월 잇달아 국제자본시장에서 대규모 起債에 성공했음.
- 4월 29일 브라질 정부는 만기 5년, 수익률 10.70%(가산금리 783bps)의 조건으로 10억 달러의 글로벌본드를 성공적으로 起債한데 이어, 6월 10일에는 이보다 개선된 조건(만기 10년, 수익률 10.58%, 가산금리 738bps)으로 12억 5,000만 달러의 글로벌본드를 발행했음.

□ 브라질 중앙은행, 경기진작위해 금리인하 가속화

- 그간 高물가 재현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을 우려,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 왔던 브라질 정부가 2003년 하반기 들어 연이어 큰 폭의 금리인하(중앙은행기준금리, Selic 기준)를 단행하는 등 금리인하세를 가속화하고 있음.
- 브라질 중앙은행은 7월 23일 금리인하(26%→24.5%)를 단행한데 이어 8월 20일에도 2.5% 포인트 금리인하를 단행, 2003년 최고 26.5%까지 치솟았던 금리는 22% 수준으로 떨어졌음.

□ 무역수지 흑자 급증으로 경상수지도 흑자로 전환

- 2003년 1~7월 브라질 무역수지흑자는 전년동기대비 229% 증가한 125억 달러를 기록
- 금년 1~7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한 391억 달러를 기록한데 반해, 수입은 -3.0% 감소한 267억 달러에 그침.
- 이와 같은 무역흑자 증가에 힘입어 경상수지도 2002년 1~7월 90억 달러(GDP대비 -3.5%) 적자에서 2003년 같은 기간 13억 달러(GDP대비 0.5%) 흑자로 반전되었음.
- 최근 브라질 무역흑자 급증의 주 요인은 1차적으로 해알화 평가절하에

다른 수출가격경쟁력 제고효과가 충분히 발현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됨.

- 비록 2003년 들어 달러대비 헤알화 가치가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9월 초 현재 달러당 헤알화 가치는 年初 대비 30% 하락한 2.9헤알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특히 최근 수출급증의 또 다른 주 요인은 브라질에 既진출한 주요 자동차업체들이 브라질 내수시장의 침체로 자동차 판매가 부진하자 해외 판매시장을 개척, 수출을 확대한데 따른 것임.
-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브라질의 무역흑자 급증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지는 않음.
- 이의 주 요인은 무엇보다도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높지 않다는 데 있음.

나. 주요 경제현안 및 과제

□ 4대 개혁입법 신속 추진

- 2003년 출범한 신정부는 브라질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제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농지개혁 등 4대 개혁을 야심차게 추진해오고 있음.
- 먼저 신정부는 연금개혁입법을 하원에서 무사히 통과시킨데 이어 9~10월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세제개혁도 하원에 상정, 당초 우려와는 달리 순조롭게 표결이 진행되고 있음.

□ 2003년 경제전망 및 과제: 신속한 경제회복이 관건

- 전반적인 실물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수출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당초 우려했던 물가상승세가 크게 주춤하면서 2003년 하반기 큰 폭의 금리인하세가 기대되고 있어, 빠르면 2003년 말 브라질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금리인하의 경기부양효과를 단기간에 기대하기 힘든데다 보다 직접적인 경기진작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재정정책이 IMF의 합의조건에 묶여 있어 年內에 신속한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특히 최근 경기침체 심화, 실업률 증가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득권 세력의 개혁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이로 인한 정치·경제적 불안이 브라질 경기회복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다 실바 정부가 취임이후 지금까지 폭넓은 국민적 지지와 정치권의 협조속에 연금개혁 및 세제개혁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는데 성공했지만, 오는 9~10월 최종 표결을 앞두고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이 같은 전반적인 대내적 정치경제여건의 악화를 반영, 2003년 브라질 경제성장률은 정부의 목표치 1.5%를 하회하는 1%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다. 대외경제 현안

□ 남미공동시장(MERCOSUR) 공고화

- 2006년 공동시장 출범을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되어온 MERCOSUR는 1999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여파에다 우루과이의 경제위기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함.
- 최근 MERCOSUR의 위기는 ▲회원국간 거시경제정책의 차이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회원국의 경제위기 ▲회원국의 역내 경제통합에 대한 관심 저하 등에 요인에 기인했음.
- 그러나 다행히도 2003년 새로이 출범한 룰라 정부가 MERCOSUR의 공고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데다

- 2003년 5월 25일 출범한 아르헨티나 신정부 또한 MERCOSUR의 강화를 대외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어 그간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던 MERCOSUR 경제통합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 회원국들은 2003년 6월 24차 정상회담에서 2006년 공동시장 출범을 재확인했으며 통합공고화를 위해 공동통화도입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음.

□ 남미자유무역지대(SAFTA) 적극 추진을 통한 대외협상력 제고

- 남미 10개국(MERCOSUR 4개 회원국 + 안데스공동체 5개 회원국+ 칠레)을 포괄하는 남미자유무역지대(SAFTA)는 당초 2002년 출범을 목표로 협상을 벌여왔으나 회원국간의 관세인하 일정 및 관세인하 범위를 둘러싼 이견에다 주요 협상국의 경제위기로 지체되어왔음.
- 특히 그간 SAFTA 협상은 미국의 FTAA 협상에 대한 정치적 의지의 부족에 실망을 느낀 남미국가들이 브라질 주도의 남미자유무역지대 움직임에 적극 찬동하며 탄력을 받는 듯 했으나 연이은 회원국 경제위기 에다 2001년 이후 미국의 공세적인 對중남미 강화전략으로 안데스공동체 등 일부 회원국의 관심이 저하되면서 답보상태에 머물렀음.
- 이에 따라 2002년 12월 6일 MERCOSUR 정상회담에서는 그간 지연되어 온 SAFTA 출범을 가속화하기 위해 2003년 말까지 SAFTA 출범을 위한 모든 협상을 종결기로 합의한데 이어,
- 2003년 6월 개최된 안데스공동체(CAN) 정상회담에서 2003년 내 MERCOSUR-CAN간의 FTA 협상을 종결기로 재차 확인, SAFTA 출범이 보다 가시화될 전망이다.
- 특히 2003년 8월 25일 볼리비아에 이어 페루가 MERCOSUR FTA를 체결(11월 1일 발효), 양자간 FTA 협상은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 난항

- 그간 FTAA 협상은 FTAA를 실질적으로 발의하여 지금까지 주도해온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의 입장을 대변해온 브라질간의 협상을 둘러싼 이견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진행되어왔음.
- 이 결과, 미주 34개국들은 2001년 4월 개최된 3차 미주정상회담에서 2005년 FTAA를 출범키로 합의했음.
- 그러나 2002년 들어 미국의 공격적인 보호무역조치에다 FTAA협상에서 농업보조금, 반덤핑, 수입쿼터 제한을 둘러싼 브라질을 위시한 중남미국가와 미국과의 첨예한 이해의 대립으로 2005년 FTAA 출범 전망을 불투명하게 함.
- 브라질을 위시한 MERCOSUR 회원국들은 미국이 WTO 협상에서 다루기를 희망하는 농업보조금 문제의 해결 없이는 FTAA 협상의 진전도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임.
- 2003년 들어 MERCOSUR는 FTAA 협상의 신속한 진전을 위해 "Light FTAA"를 제안하기도 했음.
- 브라질 정부는 예정대로 2005년 FTAA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현재 회원국간의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농업보조금, 반덤핑,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이슈를 제외한 최소한의 시장접근 협상을 통한 FTAA 출범을 제안

□ EU-MERCOSUR 자유무역협정(FTA) 조속 타결

- 1999년 공식 개시된 EU-MERCOSUR간 경제통합(Inter-Regional Association) 협상은 종전의 단순한 무역중심의 자유무역협정(FTA) 차원을 넘어 다양한 협력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협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 특히 EU와 MERCOSUR의 협상은 WTO에 통보된 관세동맹 단계의 통합체간 최초의 통합시도라는 점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EU-MERCOSUR간 통합 협상은 비록 FTAA 보다 협상개시 시기가 늦기는 하지만 현재 협상 진행속도와 범위에서 FTAA 협상을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EU와 MERCOSUR가 공식적으로 FTA 출범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현재의 협상진행 속도에 비추어 볼 때 대체로 FTAA와 비슷한 시기인 2005년이나 빠르면 2004년 중순에 협상이 완료될 전망이다.
- 현재 양자간 실무협상은 10차에 이르고 있으며, FTAA 협상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업보조금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됨.

2. 한·브라질 경제현안

가. 양국간 통상현황

1) 교역 현황

□ 수출입 현황

- 양국간의 교역은 1995년 이후 브라질의 개혁개방정책에 편승, 한국의 對 브라질 수출이 증가하면서 크게 급증하기 시작, 1997년에는 29억 달러로 정점에 달했으나, 1998년 이후 양국의 경기침체로 하락세로 돌아서 1999년에는 21억 달러에 머물렀음.
- 이후 브라질의 경기가 되살아나 한국의 對브라질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양국간 교역은 다시 성장세로 돌아서는 듯 했으나 2002년 브라질 경기침체로 한국의 對브라질 수출이 급감하면서 하락세로 반전됨.
- 양국 간 교역은 2000년, 2001년 각각 25%, 3% 증가했으나 2002년 들어 -8.7% 하락했음.
- 2002년 한국의 對브라질 수출은 전년대비 22.6% 하락한데 반해 브라질로부터 수입은 同 10.9% 증가했음.
- 2003년 들어 양국간 교역은 한국의 對브라질 수출이 대폭 감소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로부터 수입 급증에 힘입어 증가세로 반전되었음.
- 2003년 1~7월 한국의 對브라질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4% 하락한 6억 6,800만 달러를 기록한데 반해 브라질로부터 수입은 同 30% 증가한 8억 5,200만 달러를 기록.
- 한국의 對브라질 무역수지는 1976~94년 기간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다가 1995년에 와서야 1억 3천만 달러 흑자로 반전되었으며, 이후 흑자기조가 유지, 1998년에는 최고 10억 달러에 달하기도 했음.

- 이후 무역흑자규모는 한국의 對브라질 수출이 정체를 보인데 반해 브라질로부터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점차 축소, 2002년에는 8년만에 처음으로 赤字로 반전되었음.
- 2003년 들어서도 적자기조가 지속되고 있는바, 1~7월 적자규모는 1억 8,400만 달러에 이름.

□ 품목별 수출 현황

- 한국의 對브라질 주요 수출품목(MTI 1단위 기준)은 전자·전기제품, 기계류·운반용제품, 섬유류 등으로 이들 3개 품목의 비중이 약 78%(2002년 기준)에 달하고 있음.
- 2002년에는 브라질 경기 침체로 전 품목의 수출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바, 특히 주종 수출품인 기계류 수출이 큰 폭(전년대비 -35.0% 하락)의 하락세를 보였음.
- 2003년 들어서도 전자전기제품(전년동기대비 8.7% 증가)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의 수출이 커다란 하락세를 보임.
- 1~7월 기간 섬유수출이 전년동기대비 약 58% 하락,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으며 주종 수출품인 기계류 수출도 39%의 높은 하락세를 보임.

□ 품목별 수입 현황

- 한국의 브라질로부터 전통적인 주요 수입품목은 광산물, 철강금속제품, 농림수산물 등 1차산품이 전체의 약 90%에 달하고 있음.
- 광산물은 철광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에 힘입어 1998년부터 최대 수입품목으로 부상, 2001~2002년 한동안 농산물에 1위 자리를 내주기는 했으나 2003년 들어 다시 1위 자리를 되찾았음.
- 2003년 1~7월 기간 광산물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약 78% 증가, 브라질

로부터 수입 급증을 견인해오고 있음.

- 전통적으로 브라질로부터 최대 수입품의 자리를 차지해왔던 철강금속제품 수입은 농림수산물, 광산물에 이는 제3의 수입품목으로 전락함.
- 1998년 우리 경제의 침체 여파로 크게 감소했던 농림수산품의 수입은 1999년 이후 강한 회복세로 돌아서 2001년부터 제1위의 수입품목으로 부상했으나 2003년 들어 농산물에 다시 1위 자리를 내줌.
- 농림수산품은 곡류 및 곡분이 대종을 이룸.

2) 투자 현황

- 한국의 對브라질 투자진출은 브라질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과 경제안정화로 인한 内需 증가 및 MERCOSUR 등 지역경제공동체 출범으로 인한 시장규모 확대 등에 힘입어 1994년 이후 급증했으나,
 - 1997년 한국의 IMF 금융위기이후 투자진출 여력의 저하로 감소세로 돌아섰다가 2001년에 와서야 IMF以前 수준을 회복했음.
 - 2003년 6월말 현재 한국의 對브라질 해외직접투자는 총 39건, 2억 7,472만 달러에 달하고 있음.
- 브라질은 한국의 22번째 투자대상국으로 총 투자의 0.67% 비중 점유.
- 중남미 지역중 국별로는 버뮤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임. 한국의 對중남미 총 투자의 8.6% 비중 점유.
-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무역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조업 중에서도 1차 금속과 조립금속에 집중되어 있음.
- 주요 진출업체로는 LG전자, 삼성전자, 포항제철, 삼성전관 등을 들 수 있으며 최근 선경건설이 브라질석유공사의 대규모 입찰에 성공, 對브라질

건설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음.

○ 최근 주요 투자 프로젝트

- ⇒삼성전기, 마나우스에 전자부품공장 건설(2001.6월부터 가동)
- ⇒기아자동차, Bahia주에 1억 5,000만 달러의 자동차 공장 건설 프로젝트 추진 계획
- ⇒LG전자, 마나우스에 에어컨 공장 증설 투자(2001.11월 완공)

<현지생산업체 현황>

업체명	투자지역	주요 생산품목
삼성전자	마나우스	핸드폰, 모니터, 하드디스크
삼성SDI	마나우스	TV용 브라운관(CDT), 모니터용브라운관(CRT)
삼성전기	마나우스	TV 및 모니터용 부품(DY)
LG전자	마나우스	칼라TV, VCR, 전자레인지, DVD, 에어컨
LG전자	파우바페	모니터, 핸드폰
동양크레디텍	상주제두스캄보스	TV브라운관용부품
바이어블코리아	상파울루	휴대폰악세서리(휴대폰бат데리)
포항제철	빅토리아	Pallet

자료: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 최근 브라질 정부가 통신, 전력, 도로, 항만, 석유 등 기간산업부문의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 이들 부문에 대한 투자기회가 많아지고 있어 향후 한국의 對브라질 투자부문의 다양화가 기대됨.

나. 주요 통상 현안

1) 한국측 관심사항

□ 교역 현안

- 2003년 9월 현재 한국의 對브라질 수출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음.

<반덤핑 수입규제 >

- 해당품목 : 나일론 6번사
- 규제형태 : 반덤핑 수입규제 (태광산업 5.2%, 기타업체 52.2%)
- 제 소 자 : Fibra Dupont Sudamerica S.A.사
- 조치경과
 - 1999.7.21 : Fibra Dupont사, 한국산 나일론사 6번에 대해 덤핑여부 조사요청
 - 1999.8.4 : 브라질 상공개발부의 대외무역청(SECEX)산하의 산업피해구제국(DECOM), 조사요청 접수
 - 2000.1월 : 조사개시
 - 2001.6월 : 확정판정

자료: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수출 자율규제>

- 해당품목 : 폴리에스터 직물(5407.5210 및 5407.6100)
- 규제형태 : 수출자율규제
- 규제기간 : 2003.1.27~2004.12.31
- 귀 터 량 : 2003년도 15,606톤, 2004년 16,542톤
- 제 소 자 : Sinditec직물조합
- 조치경과
 - 2003.1.17 : 양국간 수출자율규제협정 서명
 - 2003.1.27 : 수출 자율규제

자료: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 투자 현안

- 한국 기업이 對브라질 투자진출시 요구하는 주요 희망 사항은 다음과 같음.
 - ⇒ 투자진출시 요구되는 과다 현지부품 사용비율의 하향 조정
 - ⇒ 브라질 진출 외국기업의 외환구좌 개설 불허 및 과실송금 제한 등 외환거래제한 완화

2) 브라질측 관심사항

☐ 브라질산 농산물의 수입개방 촉구

- 현재 브라질측은 한국이 위생검역상의 이유로 수입을 허용치 않고 있는 브라질産 생과일, 가금류, 냉동·냉장육 등에 대한 수입을 촉구하고 있음.

□ 비관세 장벽 개선 요구

- 브라질측은 한국의 복잡한 통관절차 등 비관세 무역장벽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농산물 분야에서의 높은 관세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음.

□ 한국기업의 투자진출 확대 요망

- 브라질은 현재 300개 이상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 특히 상파울루州의 경우 내륙지방의 농가공업은 물론 발전설비, 석유화학, 가스관 개설,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바, 이들 부문에 한국기업의 투자진출을 적극 요망.
- 특히 브라질 정부는 2003년까지 63억 달러 투자 예정인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등 발전소, 송전선 건설에 한국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희망.